□성명서□

물가 잡겠다고 공권력으로 농민 잡는,
잔인무도(殘忍無道)한 김현수 장관은 즉각 사퇴하라!

피가 거꾸로 솟는다. 김현수 장관은 8.13일 낙농진흥회에 이사회 소집 관련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농식품부장관으로 하여금 원유와 유제품의 수급안정 등을 위해 행정명령을 발동할 수 있다는 것을 근거조항(낙농진흥법 제17조제2항)으로 제시했다. 행정명령 자체도 위법일 뿐더러 낙농진흥회에 불법적인 안건을 이사회 상정하라고 대놓고 강요한 것이다. '야바위꾼'들의 몸통인 장관의 행정명령에 의해 직권남용이 만천하에 드러났다.

농식품부는 관료출신 유가공협회장과 연대하여 축산정책국장(당연직이사)과 유가공대표 이사 4인이 직접 서명한 이사회소집요구서를 제출하고, 그간 낙농진흥회에 이사회 개최를 압박해왔다. 장관의 뜻대로 상황이 돌아가지 않자, 상관도 없는 수급안정을 위해 발동할 수 있는 행정명령을 들이밀면서 이사회 개최를 지시한 것이다. 낙농진흥법 및 낙농진흥회규정에 따라 낙농진흥회 이사회에서 결정된 2020년도 원유가격을 낙농진흥법을 근거로 이사회를 개최하여 철회시키겠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난센스다. 장관의 사냥개인 당국자들은 이사회개의정족수를 채우기 위해 농협(상무)과 생산자측 이사(조합장) 참석을 종용하며 지금 이순간도 모든 공권력을 동원하고 있다. 농협을 향해 온갖 회유와 압박이 진행되고 있다. 장관과 당국자들은 목적달성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괴물이 되어버렸다.

이미 저들은 법령을 준수하며 직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할 공무원의 성실의무를 위반했다. 특히 낙농가에게 원유가격결정안을 파기할 권한이 없음에도 권한을 남용하여 원유가격결정안을 철회토록 강제하여 낙농가로 하여금 직업의 자유 및 영업권 행사를 방해했다.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를 방해한 형법상의 명백한 직권남용이다. 농민을 졸(卒)로 보지 않는다면 할 수 없는 짓을 김현수 장관이 자행하고 있다. 이에 전국 낙농가들은 잔인무도한 김현수 장관을 낙농발전을 가로막는 주적으로 간주하고, 즉각 사퇴할 것을 촉구한다! 끝으로 우리는 정부, 낙농진흥회를 상대로 민·형사상의 책임도 반드시 물어 응징할 것임을 밝혀둔다! 낙농을 시작으로 그동안 수면아래에 있던 농정불신이 폭발하는 상황에 직면할 것이다.

2021. 8. 13(금)

한 국 낙 농 육 우 협 회

전화 : 02-588-7055 / 팩스 : 02-584-5144

홈페이지 : www.naknong.or.kr